

한림원소식

취임사 “국민들이 사랑하고, 국력과 국격을 높이는 국제적 리더십 갖춘 한림원 만들 터...”

한림원이 만난 사람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 8대 신임 원장

2016년도 제 1회 정기총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제한림원연합회 (IAP) 이사국 선임



KAST 한국과학기술한림원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우) 13630
전화 031-726-7900 팩스 031-726-7909 이메일 kast@kast.or.kr
홈페이지 www.kas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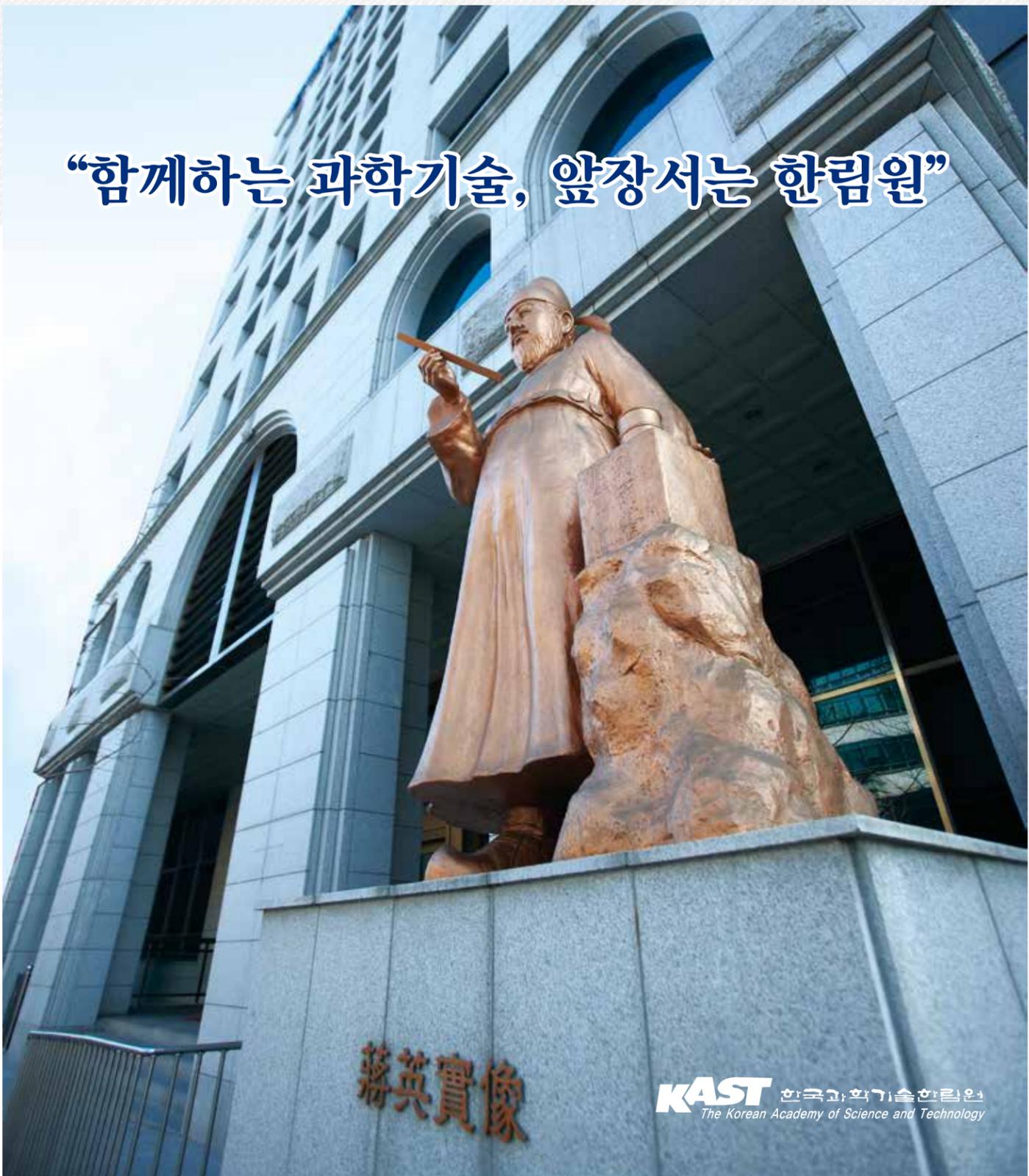
‘한림원소식’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격월간 발행되며, 한림원 회원 및 유관기관에 무상으로 배포됩니다.

한림원소식 2016년 3월호 통권 109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KAST 한국과학기술한림원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함께하는 과학기술, 앞장서는 한림원”

KAST 한국과학기술한림원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림원소식

2016년 3월호 Vol. 109

발행인 | 이명철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둘마로 42 (우)13630
발행일 | 2016년 3월 25일
전화 | 031-726-7900
팩스 | 031-726-7909
홈페이지 | www.kast.or.kr
편집디자인·인쇄 | 경성문화사(02-786-2999)

‘한림원소식’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격월간 발행되며, 한림원 회원 및 유관기관에 무상으로 배포됩니다.

Contents



- 04 **취임사** – ‘국민들이 사랑하고, 국력과 국격을 높이는 국제적 리더십 갖춘 한림원 만들 터...’ / 이명철 원장
- 07 **KAST News**
 - 07 이명철 제 8대 원장 취임
 - 10 2016년도 제 1회 정기총회
 - 12 2016년도 제 1회 임시이사회
 - 13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헌정대상 후보자 추천공고
 - 1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제한림원연합회 (IAP) 이사국 선임
 - 16 ‘석학, 과학기술을 말하다’ 시리즈 출판기념회
 - 18 제 1회 카길한림생명과학상 수상자에 최윤재 서울대 교수 선정
 - 20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 혁신방안은?’ – 제 99회 한림원탁토론회
 - 22 과학기술 8개분야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 25 부울경교류회 주관 제 114회 한림콜로키엄
 - 26 흥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 1차관 내방
 - 27 영국한림원 사무총장 내방
 - 27 G-Science Academies Meeting 2016 참석
- 28 **한림원이 만난 사람** –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 8대 신임 원장
- 31 **한림원 후원안내**
- 32 **세계의 아카데미** – 아프리카 42개국 과학 석학들의 한림원 ‘아프리카한림원(AAS)’
- 36 **제 8회 IAP 총회 참가기** – 우리 한림원의 IAP 이사국 당선은 국제 과학기술계에서 거둔 최고의 쾌거
- 38 **회원제언** – ‘한림원이 과학 대중화에 적극 참여 필요’
- 40 **명화로 보는 藝와 術** – 이상적 여인상 ‘미인도’
- 42 **회원동정**



이명철 제 8대 신임원장

“국민들이 사랑하고, 국력과 국격을 높이는 국제적 리더십 갖춘 한림원 만들 터...”

※ 본 내용은 지난 3월 14일 개최된 이명철 제 8대 원장 취임식의 취임사 전문입니다.

존 경하는 조완규 초대원장님을 비롯한 전임 한림원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한림원 회원 여러분!

먼저, 임상의학자인 과분한 저를 과학기술분야 최고 기관의 한림원원장으로 선출해주시어 오늘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기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또한, 석학(碩學)인 모든 회원분들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원대한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곧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실, 한림원장의 취임은 개인적으로 더 없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려한 재가 회원 분들께 부끄럽지 않고, 한림원이 한 단계 성장하게끔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러한 책임의 무게를 창조적 도전의 기회로 삼아, 마침 금년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반세기를 맞아 미래 21세기에 새롭게 도약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만들고자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을 중점으로 과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림원의 위상 강화입니다.

전임 원장님들께서 발전시키고 이룩하신 초석을 발판삼

아 위상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한림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원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정관상 정책연구소를 크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한림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정책개발을 하고 국가로 하여금 과학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자문 역할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미래부에서 금년도 과학기술정책수탁사업 예산을 별도로 2억을 배정받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회원 참여도 제고와 복지 강화입니다.

한림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종신 및 정회원이 참여하는 제반 사업에 동기부여를 높여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분들이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더 발전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복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침 작년말 전임 박성현 원장님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숙원사업이던 과학기술인유공자예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림원이 이를 위한 실무집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금년도 6억원의 실행예산을 배정, 운영하게 되어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됩니다.

셋째, 한림원의 글로벌 위상 확립입니다.

선진국 아카데미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과학기술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협력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적극 환류시켜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림원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 개발도상국 아카데미와의 협력을 통해 특히 AASSA같은 지역 기구를 통해 지식 전달의 성공적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은 지난 3월 2일 남아공에서 개최된 IAP 국제한림원연합회 총회에서 우리 한림원이 지난 20년간의 공헌과 열정적인 역할이 인정되어 최초로 이사국으로 선임되어 김유항 AASSA 사무총장과 제가 현장에서 이 감동을 맞보았습니다. 고생은 하였으나 보람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원장이 된 후 첫 번째 활동이어서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평소에도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일이다'라는 선인후사(先人後事)를 항상 생각하고 또 실천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경험상 확신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혼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며 비전을 공감하고 한림원의 변화를 모색하며 대내외 협력(관산학연언민)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회원 한분 한분을 소중한 멘토로 생각하며,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미래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한림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통과 공생·공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테니 부디 좋은 의견과 고언을 주시기를 바라며 경쟁력 있고 생명력 있는 한림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사랑하는 과학기술한림원, 국력과 국격을 높이는 과학기술한림원, 국제적 리더십이 있는 과

학기술한림원 소위 신삼국시대에 걸맞는 한림원이 되기를 희망하여 봅니다.

특히 저는 새로이 '과학과 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사회 속에서의 과학기술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한림원의 역할을 정책적으로 모색하겠으며, UN에서 선언한 중요한 글로벌 Agenda인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미 윤순창 대외협력부원장님께서 미래부의 특별예산을 배정받아 미래지구한국위원회와 지역 미래지구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빌어 한림원의 모든 일을 실무적으로 맡아주실 총괄부원장에 출중하시고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이학부 회원이시며 얼마전 KAIST에서 정년을 맞으신 유옥준 교수님을 특별히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과 축하와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같은 배를 타고 갈 여섯분의 부원장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부원장단 회의체를 통하여 주요한 이슈 및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상호 장단점을 강화 보완하여 효율적이고도 강한 추진동력을 갖는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부디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림원장이라는 중책에 자리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제 8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이 명 철

이명철 제 8대 원장 취임

한림원장 이취임식...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들 대거 참석



이명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국군수도병원 원장)이 우리 한림원의 제 8대 원장에 공식 취임했다.

우리 한림원은 지난 3월 14일 대강당에서 회원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림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먼저 박성현 전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국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한림원’을 비전으로 삼고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 한림원의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이임소감을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특히 국제적으로 우리 한림원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우리 한림원이 활동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이명철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먼저 한림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기동안 현

신적으로 봉사하겠다”며, “한림원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연구소를 크게 활성화시켜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회원들의 한림원 사업 참여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하고, “선진국 아카데미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과학기술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를 다시 과학기술정책에 적극 환류시켜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기초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향후 임기동안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일이다’라는 선인후사(先人後事)의 정신으로, 각 부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일하며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과학기술한림원, ▲국력과 국격을 높이는 과학기술한림원, ▲국제적 리더십이 있는 과학기술한림원을 만들어 소위 신삼국시대에 걸맞는 한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사에 나선 조완규 초대원장은 “향후 우리 한림원이 보다 국제적 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바지해 달라”고 말했다.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은 우리 한림원이 나아가 할 방향으로 브레인, 젊음, 글로벌의 세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한림원이 기초과학진흥과 과학기술 대중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길생 전 이사장은 “이임한 박성현 전 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새로운 원장께서 회원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회원들의 화합과 참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신임 이명철 원장은 지난 1981년부터 31년간 서울



“

향후 임기동안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일이다’라는 선인후사
(先人後事)의 정신으로, 각 부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일하며
변화를 모색하겠다.

”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봉직하며, 의대 연구부학장, 교무 부학장, 대학뇌기능매핑학회 회장,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회장, 대한핵의학회 이사장 및 세계핵의학회장, 제 6차 세계동 위원소대회 조직위원장, 세계동위원소기구 회장 등을 역 임했다. 또한, 한국바이오경제포럼 회장, 가천대 길병원장 겸 메디컬캠퍼스 부총장, 한국과총 부회장(보건부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분과의장, 국군수도병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신임 이 원장은 지난 해 한림원 정회원을 대상으로 실시 한 우편투표를 통해 당선된 바 있으며, 정기총회의 인준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거쳤다.☞

제 8대 이명철 원장 약력

성 명	이 명 철 (李明哲)
생년월일	1948년 9월 22일
학 력	197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1976 서울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석사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박사
경 력	1981~2012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 1996~200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학장, 교무부학장 2000~2002 서울대학교 방사선의학연구소장 2007~2010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2008~2010 한국바이오경제포럼 회장 2012~2013 가천의대 길병원 원장,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부총장 2010~현재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회장 2011~201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보건부문) 2013~현재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이사장 2014~현재 국군수도병원 제 24대 병원장 2014~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2014~현재 방사성동위원소 신개념 치료기술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위원장 2015~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

제 8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정책연구소장

■ 원장



이명철

■ 부원장



유옥준
총괄



김승조
기획·정책담당



윤순창
대외협력담당



채종일
출판담당



이석한
학술담당



이무하
회원담당

■ 학부장



정선양
정책학부



김도한
이학부



이창희
공학부



윤정한
농수산학부



정진호
의약학부

■ 학술·협력부장



이공주
국내학술부



김성훈
국제학술부



이두성
국내협력부



박현진
국제협력부

■ 정책연구소장



김학수
소장

2016년도 제 1회 정기총회

제 8대 원장 선출 인준 (안) 및 제 8대 이사 선출 인준 (안) 등 의결



우리 한림원의 2016년도 제 1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 8대 원장 선출 인준 (안)'과 '제 8대 이사 선출 인준 (안)',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안)' 등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제 8대 이사는 김명자 한국과총 차기 회장 등 모두 15인이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 1회 카길한림생명과학상 수상식과 함께 2015년도 '석학, 과학기술을 말하다' 시리즈 출판 기념회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K**

제 8대 이사 (가나다순)



권숙인
이사



김명국
이사



김명수
이사



김명자
이사



김병동
이사



김세종
이사



김용해
이사



김유삼
이사



나정웅
이사



박규택
이사



박성현
이사
(당연직/전원장)



유정열
이사



이무근
이사



이명철
이사
(당연직/현원장)



용홍택
이사
(당연직/관계국장)

제 8대 감사



김성철
감사



류관희
감사

2016년도 제 1회 임시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이무근 박사 선임



우리 한림원의 2016년도 제 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3월 14일 한림원회관 제 1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제 1회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인준된 이사진들의 첫 모임이었던 이날 이사회에서는 먼저 김명국 이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사장 호선(안)의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우리 한림원의 신임 이사장에 이무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동명대학교 총장)이 만장일치로 호선되었다.

신임 이무근 이사장은 지난 1969년부터 32년 동안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로 봉직했으며, 한국직업교육학회 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초대원장, 한국고등교육학회 회장 등을 거쳐 경일대학교 및 동명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신임 이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이사회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원장단에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이무근 신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13인과 김성철, 류관희 감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사장 호선(안)을 비롯한 총괄부위원장 승인(안) 등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제 8대 이무근 이사장 약력

성명	이무근(李茂根)	
생년월일	1940년 10월 13일	
학력	1964 서울대학교 학사 1969 서울대학교 석사 1977 Univ. of Illinois 박사	
경력	1969 ~ 200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984 ~ 1986 한국직업교육학회 회장 1985 ~ 1987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심의회 고등교육분과 전문위원 1988 ~ 1992 한국농업교육학회 회장 1989 ~ 200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 1995 교육부 대학설립준칙제정위원회 위원장 1995 ~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1997 ~ 20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초대원장 1998 ~ 2000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직업평생교육분과 위원장 1999 ~ 200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 1999 ~ 2000 국무총리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위원 2001 ~ 2005 경일대학교 총장 2001 ~ 2003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평생직업교육분과 위원장 2002 ~ 2004 한국고등교육학회 회장 2003 ~ 2005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 2005 ~ 2006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 위원장 2006 교육인적자원부 대구구조개혁관리위원회 위원장 2007 ~ 2008 교육인적자원부 통합국립대학평가위원회 위원장 2006 ~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07 ~ 2011 동명대학교 총장 2010 ~ 2012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 회장 2014 ~ 현재 한국연구재단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헌정대상 후보자 추천공고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064호

과학기술기본법 제 31조 (과학기술인 우대 등에 의거 설치된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국립과천과학관 내 위치)에 우리 역사상 탁월한 과학기술 업적과 발자취를 남긴 과학기술인을 헌정하여 기리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박성현

1. 기본자격 및 업적기준

가. 기본자격

- ①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 우리나라 과학기술선현 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과학기술인
- ② 탁월한 과학기술업적으로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분
- ③ 모든 과학기술인들의 귀감이 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만한 훌륭한 인품을 겸비한 분

나. 업적기준

- ① 과학기술 분야의 업적이어야 함
- ② 국내에서 이룩한 업적을 원칙적으로 대상으로 하되,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업적이어야 함
- ③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종합적인 업적을 고려함

2. 선정규모

약간명

3. 추천자격

- ①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 ② 3개 이상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

4. 제출서류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1부 및 전자파일(추천서 양식은 www.kast.or.kr에서 다운로드)

5. 접수기한

2016년 5월 27일 (금)까지 (당일 소인 유효)

6. 접수방법

우편 접수

7.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무처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담당자앞
우편번호 : 13630 (문의 : 031-710-4645)

8. 기 타

- 헌정대상 후보자는 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 및 업적에 대한 조사, 평가 후 인물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헌정과정과 사유를 언론을 통해 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헌정자로 자동 확정됨
- 현재 국립과천과학관 내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에는 김동일, 김순경, 김재근, 김점동, 김정호, 서호수, 석주명, 세종대왕, 안동혁, 우장춘, 윤일선, 이순지, 이원철, 이임학, 이 천, 이태규, 이호왕, 이휘소, 장기려, 장영실, 정약전, 조백현, 조순탁, 최무선, 최석정, 최형섭, 한만춘, 허문희, 허 준, 현신규, 홍대용 등 총 31인이 헌정되어 있음
-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홈페이지 (<http://kast.or.kr/HALL/>)

※ 본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제한림원연합회 (IAP) 이사국 선임



우리 한림원이 국제한림원연합회 (IAP—the global network of science academies)의 이사국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3년.

지난 3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허머너스에서 개최된 제 8회 IAP 총회에서 산업화 이사국 (Industrialized Country)에 선임된 우리 한림원은 앞으로 국제한림원연합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민간외교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한림원연합회는 지난 1993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과학기술 국제기구로, 회원 한림원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

적 중요 현안에 대한 과학적 견해를 제공함으로써 인류 미래의 현안에 대한 과학계의 목소리를 대변함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국제한림원연합회는 2인의 공동의장을 주축으로, 11개 이사국 (산업화국 5석, 개도국 6석)으로 구성되며 매 3년마다 선거를 통해 공동의장 및 이사국을 선출하고 있다. 현재 이사국 중 산업화 이사국에는 우리 한림원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한림원이 있으며, 개도국을 대표하는 이사국에는 브라질, 칠레, 쿠바, 이란, 케냐, 남아공 한림원이 포진해 있다.📍

※ 36쪽 제 8회 IAP 총회 참관기 참조

국제한림원연합회 (IAP) 개요



이사국 현황

• 산업화국 (Industrialized Country) / 5개 의석

구분	기관	국가	비고
1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 (AAS)	호주	
2	Royal Society of Canada (RSC)	캐나다	연임
3	Science Council of Japan (SCJ)	일본	연임
4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한국	
5	Royal Society	영국	

• 개도국 (Developing Country) / 6개 의석

구분	기관	국가	비고
1	Brazilian Academy of Sciences	브라질	연임
2	Academia Chilena de Ciencias	칠레	
3	Cuban Academy of Sciences	쿠바	
4	Academy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	
5	African Academy of Sciences (AAS)	케냐	
6	Academy of Science of South Africa (ASSAf)	남아공	연임

IAP 이사국 주요업무

- IAP 이사회 및 총회 참석
- IAP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등

기관 개요

- 명 칭 : 국제한림원연합회 (IAP—the global network of science academies)
- 설립년도 : 1993년
- 설립목적 : 회원 한림원과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 공공을 대변하여 과학적 견해를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현안에 과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함
- 회원현황 : 111개 한림원
- 소재지 :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 조직구조 : 선거를 통해 3년 임기의 공동의장 및 이사국 선출
 - 공동의장 : 총 2인(산업화국 - 1인, 개도국 - 1인)
 - 이사회 : 총 11개 의석(산업화국 - 5석, 개도국 - 6석)
- 주요활동
 - 주요 현안에 대한 선언문 작성 및 발표
 - 총회 및 워크숍 개최(매년 30회 이상의 회의 지원 및 개최)
 - 젊은 과학자 지원
 - 한림원의 정책 자문 역량 강화 지원
 -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자문 종합 및 제공
 - InterAcademy Project 지원을 통한 교육 지원
 - 과학자, 정책결정자, 대중, 매체 간의 소통 지원
- ※ 기타 활동 관련 분야: 생물다양성, 생물보안, 생명공학,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환경, 건강, 물, 과학계에서의 여성의 역할, 젊은 과학자

‘석학, 과학기술을 말하다’ 시리즈 출판기념회



우리 한림원은 지난 2월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5년도 ‘석학, 과학기술을 말하다’ 시리즈 세 권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5년도 회원저술지원사업을 통해 발간된 이번 저서는 시리즈 제 21권 ‘우리 몸의 기생충 적인가 친구인가’ (채종일 서울대학교 교수 지음)과 제 22권 ‘해양 생물을 이용한 헬스케어’ (김세권 부경대학교 연구특임교수 지음), 제 23권 ‘생활 속 의학 용어의 비밀’ (김경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지음) 등 3권이다.

이날 출판기념회의 경과보고를 통해 유정열 전 총괄 부원장은 “지난 2006년도부터 시작된 회원저술지원사업은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훌륭한 저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자유아카데미 주정희 대표님과 김지영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채종일 교수의 저서 ‘우리 몸의 기생충 적인가 친구인가

가’는 국내에 극히 미미하게 알려져 있는 기생충 질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권 교수의 ‘해양 생물을 이용한 헬스케어’는 다양한 해양생물 자원들의 생리기능성 물질을 설명하고 이들이 우리 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김경환 교수의 ‘생활 속 의학 용어의 비밀’은 최근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학상식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우리 한림원의 회원저술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과학기술분야 석학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한림원 회원들의 저술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저서를 출판 보급함은 물론, 대국민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모두 23권이 발간된 ‘석학, 과학기술을 말하다’ 시리즈는 전국 유명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K**

‘우리 몸의 기생충 적인가 친구인가’ (‘석학, 과학기술을 말하다’ 시리즈 제 21권)



- 332쪽 / 값 18,000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발행처 자유아카데미
- 저 자 : **채종일** (의약학부 정회원,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이 책에서는 관심과 흥미를 돋우기 위해 딱딱한 형태학이나 생활사, 면역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등에 관한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분류학(흥미로운 부분만 발췌하여), 생태학, 역학, 증상,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생충과 기생충학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생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할 때는 되도록이면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고, 한국의 기생충과 세계의 기생충을 소개할 때는 과학적인 내용을 일부 담으면서 필자가 직접 겪은 경험과 에피소드를 곁들여 재미있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기생충들의 흥미로운 생활상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발표된 논문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기술하였다.

| 채종일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기생충 생태학 및 역학 연구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농무성 기생충병연구소와 일본 동경대학교 의과연구소의 방문 교수로서 기생충 면역학을 공부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생충학교실 주임교수, 의학연구원 부원장 및 원장(직대), 감염병연구소장, BK21 인간생명과학연구단장을 역임하였다. 학회에서는 대한기생충학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대한의학회 기초의학이사, 대한기초의학협회 회장, 한국외과대학장협의회 전문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의약학부장)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해양 생물을 이용한 헬스케어’ (‘석학, 과학기술을 말하다’ 시리즈 제 22권)



- 344쪽 / 값 18,000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발행처 자유아카데미
- 저 자 : **김세권** (농수산학부 정회원, 부경대학교 연구특임교수)

최근 들어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정보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현대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환경의 악화로부터 오는 질병과 성인병의 증가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해양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인류의 건강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 및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 질환의 기초 지식을 소개·전달하고, 연구 결과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 김세권 | 부경대학교(구 부산수산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해양생명공학을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부경대학교 응용화학부에 부임하여 해양생화학 연구실을 만들었고 2006년부터 화학과 교수,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및 캐나다 메모리얼대학교 객원 교수를 지냈으며,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생명공학사업 해양바이오프로세스연구단 단장직을 2004년부터 10년간 수행하였다.

‘생활 속 의학 용어의 비밀’ (‘석학, 과학기술을 말하다’ 시리즈 제 23권)



- 292쪽 / 값 15,000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발행처 자유아카데미
- 저 자 : **김경환** (의약학부 정회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건강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는 앞다투어 수많은 의학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 그들 중에 일반인들에게도 보건 의료계에 종사하던 사람들만 쓰던 의학 용어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고 있고 상당수는 일상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의학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학 용어의 뿌리와 그 용어가 만들어진 배경을 토대로 다양한 주제로 70여 개의 글을 모아 구성하였다. 이 책은 단순히 의학 용어를 익히고 이해하기에 앞서 그 뿌리(어원)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이해함으로써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의학 용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김경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어서 약리학 전공으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뉴캐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과 맨체스터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소화기약리학을 연구하였다. 1974년부터 2011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그간 대한약리학회 회장, 대한임상 약리학회 회장, 대한의학회 기초의학이사, 국제약리학회 대의원을 맡았으며, 2003년 아시아-태평양 약리학회 조직위원장을 지냈다.

제 1회 카길한림생명과학상 수상자에 최윤재 서울대 교수 선정



우리 한림원과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이보균)는 제 1회 카길한림생명과학상 수상자로 최윤재 서울대 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를 선정하고, 지난 2월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 교수는 기존 전통축산분야에 생명공학 및 소재공학 등 첨단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룩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도약시키는데 기여했다. 특히 최 교수는 창의 융합적 전략으로 새로운 유전자 생리활성 기능 규명, 항생제 대체 사

료 첨가제 개발, 점막면역백신 등을 개발함으로써 친환경 기능성 축산식품 개발 및 제품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한편, 카길한림생명과학상(주)카길애그리퓨리나 이보균 대표의 후원으로 2015년 첫 시행된 사업으로, 농수임 축산학 분야에서 연구개발 실적이 탁월하여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과학기술자를 선발 포상하기 위한 것이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세계 최고의 동물영양기술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이다.☎

제 1회 카길한림생명과학상 수상자

성 명 최윤재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생년월일 1954년 12월 5일

전 공 동물생명공학

학 력

1973 ~ 1980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학사

1981 ~ 1983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석사

1984 ~ 1987 미국 North Dakota 주립대학 동물생명공학 박사

주요경력

1988 ~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학과장 및 학부장 역임

1998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14 ~ 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 회장

2012 ~ 서울대학교 평창그린바이오연구원 친환경경제동물연구소 소장

2012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이사

주요업적

최윤재 교수는 1988년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로 취임한 이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열정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14명의 박사후연구원, 29명의 박사 및 52명의 석사를 배출하면서 농축산부문의 학문발전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힘써왔다.

전통축산과 생명공학의 융합을 통한 축산과학기술분야의 선두주자로 2016년 현재까지 총 36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49건의 국내특허 및 7건의 국제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며 우리나라 축산업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최 교수는 창의 융합적 전략으로 새로운 유전자 생리활성 기능 규명, 항생제 대체 사료 첨가제 개발, 점막면역백신 등을 개발하여 친환경 기능성 축산식품 개발과 제품화에 전념하고 있다.



2016년도 '한림원 석학과의 만남' 사업안내

우리 한림원은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 (석학지식연계)'의 일환으로 한림원 석학들이 직접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강연하는 '한림원 석학과의 만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추진되는 금년도 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전국 중·고등학교 (지역위차상 강연 수혜를 받기 어려운 학교 우선)

나. 신청자격 : 학교 선생님 등 관계자

다. 제출서류 : 홈페이지 (www.kast.or.kr) 공지사항 참고

라. 문 의 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학술사업팀

(전화: 031-710-4624, 팩스: 031-726-7909,

이메일: bhjang@kast.or.kr)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 혁신방안은?’

제 99회 한림원탁토론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 혁신방안은?’을 주제로 한 제 99회 한림원탁토론회가 지난 2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동수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종일 서울대학교 교수, 송일열 미국 드렉셀대학교 교수, 유희준 KAIST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이영조 우리 한림원 빅데이터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이 좌장의 진행으로, 김성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박병주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엽 KAIST 교수,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정진택 한성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무선 기술바탕 의료산업의 확산기제’를 주제로 빅데이터, 오믹스 데이터의 임상적 활용이 가까워진 현실에 대해 설명하며,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과 진흥을 위한 투자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주제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유전체 검사가 충분한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유전체 정보가 모여야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연구비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업적 서비스인 컨슈머 지노믹스가 현실적 대안”이라



윗줄 좌로부터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수 서울대 교수, 김종일 서울대 교수, 송일열 미국 드렉셀대 교수, 유희준 KAIST 교수

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일열 미국 드렉셀대 교수는 ‘스마트 에이징’을 주제로 “우선 스마트 에이징의 필요성을 정부와 연구자가 인정하고, 커뮤니티 개발, 기술개발, 예방 진단기술 차용, 개발된 기술의 전파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희준 KAIST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를 주제로 빅데이터의 특징이 거대 데이터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방식임을 설명하고, “앞으로 헬스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에서 빅데이터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에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김성수 한국방통대 교수는 “빅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동반 성장함으로써 직업창출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 발급 및 빅데이터 융합연구센터 설립, 빅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의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산업화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지만 병원의 적극적 참여부족,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각 병원들의 참여 독려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적 측면 돌파, 전담기관 구성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엽 KAIST 교수는 노령화 사회에서의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의사협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의료가 곧 다가올 또는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단일 건강보험체계 및 발달된 IT 기술을 잘 융합함으로써 국민복지와 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한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택 한성대 교수는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우선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의 경우 보다 정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 100회 기념 한림원탁토론회 개최 안내

우리 한림원 과학기술정책자문 및 건의사업의 대표적 토론 행사인 한림원탁토론회가 1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림원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 100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오니, 한림원 회원을 비롯한 과학 기술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바랍니다.

개최일정

- 일 시 : 2016년 4월 18일 (월) 16:00
- 장 소 :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주 제 :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50년의 도전과 대응
- 발 제 : 김도연 POSTECH 총장,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 8개분야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2015년도 한림석학정책연구결과 도출 ... 정책입안자에게 실질적 자문효과 기대



우리 한림원이 지난해 수행한 한림석학정책연구과제의 결과로 모두 8개 분야의 과학기술 정책자문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 생명공학 수용을 통한 한국 농업 혁신 정책방안,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회고와 전망, ▲ 우리나라의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방안, ▲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 한반도 산림 생태보전 및 복

원, ▲ 창조경제를 끌고 가는 공과대학의 역할, ▲ 포스트 창조경제 시대의 과학기술혁신전략, ▲ 미래지구(Future Earth)와 국제 과학계의 최근 동향 등 8종이다.

금번 발간된 보고서는 우리 한림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운영한 8개의 정책자문보고서 집필위원회 운영에 따른 결과물이다. 

〈 정책자문보고서 집필위원회 운영현황 (2015년) 〉

위원회명	위원장	보고서명
'창조농업혁신' 집필위원회	이철호 (농수산학부 종신회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생명공학 수용을 통한 한국 농업 혁신 정책방안
'국가과학기술정책진단' 집필위원회	최항순 (공학부 정회원,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회고와 전망
'글로벌과학기술리더십' 집필위원회	정선양 (정책학부장, 건국대학교)	우리나라의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방안
'과학기술자의사회적책임' 집필위원회	신동천 (정책학부 정회원, 연세대학교)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한반도산림생태보전및복원' 집필위원회	박용구 (농수산학부 정회원, 경북대학교)	한반도 산림 생태보전 및 복원
'창조적공과대학' 집필위원회	변증남 (공학부 종신회원, KAIST)	창조경제를 끌고 가는 공과대학의 역할
'포스트창조경제과학기술혁신전략' 집필위원회	박원훈 (공학부 종신회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포스트 창조경제 시대의 과학기술혁신전략
'미래지구' 집필위원회	윤순창 (대외협력담당 부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래지구(Future Earth)와 국제 과학계의 최근 동향

▣ '생명공학 수용을 통한 한국 농업 혁신 정책방안' 집필위원장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농수산학부 종신회원)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회고와 전망' 집필위원장 최항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공학부 정회원)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위한 해결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세부과제로 ▲ 식량 신제품 개발 '첨단생명공학기술' 적극 도입,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부정적 서술 과학에 근거한 정보 수정, ▲ 생명공학 신제품 안전성 올바른 정보전달, ▲ 생명공학기술 기반 식량생산체계 관리 점검 '식량안보법(가칭)' 제정 운용 등을 제시했다. 생명공학기술에 소극적인 오늘의 농업정책이 계속되면 농업분야에서 생명공학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종자에 의존하는 농업종속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성'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와 함께 과학기술정책과 체제 관심이 변화하는 만큼 과학기술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권 교체 시 과학기술행정부처의 이름과 미션 등의 잦은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출연연구기관의 거버넌스 안정성과 지속성 부족은 효율적인 과학기술 정책조정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 '우리나라의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방안'

집필위원장 정선양 건국대학교 교수 (정책학부 정회원)

미국과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대 개도국 과학기술 협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ODA와 과학기술 ODA가 양적인 성장을 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ODA는 일반 ODA사업과 함께 질적인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직접 경험한 과학기술 기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집필위원장 신동천 연세대학교 교수 (정책학부 정회원)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역할을 분석하고, 일반 국민이 조건 없이 과학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과학자 집단의 자문 수요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러한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과학계와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위험을 줄이고 소통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한반도 산림 생태보전 및 복원'

집필위원장 박용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농수산학부 정회원)

지난 반세기 이상 분단된 한반도는 남북한의 독립적 자연생태계 관리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보전하는 것이 어려워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의 토양, 산림생태계, 해안림 3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 한반도 토양과 해안림 등 통합적 관리를 위한 남북한 합의도출, ▲ 한반도 산림보전과 복원을 위한 산림생태지역 구분도 작성 및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연계해 생태통로 복원 등을 제시했다.

▣ '창조경제를 끌고 가는 공과대학의 역할'

집필위원장 변증남 KAIST 명예교수 (공학부 종신회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지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공과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주요과제라 서술했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기술혁신의 주역이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인력이라면 박사급 인력의 대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대학, 그 중에서도 산업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과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포스트 창조경제 시대의 과학기술혁신전략'

집필위원장 박원훈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사장 (공학부 종신회원)

집권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단기적인 투자분야에 과학기술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우려하며 창조경제에 치우친 정책이 아닌 과학기술의 '탁월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출연연과 대학, 정부와 민간 등이 가져야 할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제안하며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제언 등을 담고 있다.

▣ '미래지구(Future Earth)와 국제 과학계의 최근 동향'

집필위원장 윤순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학부 정회원)

우리나라도 고유의 강점, 유구한 전통과 문화, 역동적인 경제발전, 다양성 등을 바탕으로 '미래지구' 한국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속가능발전과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도전과제에 적극 역할을 담당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지구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설립단계부터 2015년 활동 요약까지를 실어 미래지구의 가치와 현황을 소개하고, 미래지구 연구의제들과 각 나라별 추진현황을 분석했다.

부울경교류회 주관 제 114회 한림콜로키엄



우리 한림원의 부울경교류회 (회장 이상열)가 주관한 제 114회 한림콜로키엄이 지난 2월 26일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해양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고온적응 생물체 개발'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콜로키엄에서는 하경자 부산대 교수, 김수암 부경대 교수, 이상열 경상대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해양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체 개발 측면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하경자 교수는 '기후변화와 기후물리에서의 난제들'을 주제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후과학과 기후인자들의 기후영향력, 동아시아 미래 극한 강수의 증가 예고, 기후영향력에서의 동아시아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수암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자원의 반응'을 주제로 수산물 생산과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생물 및 수산업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상열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작물 신호전달 연구 및 작물개발 현황'을 주제로 생명과학 이슈 및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 사업단의 소개를 통해 미래의 농업생명과학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 함께 기후변화가 수산생물 및 우리 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 1차관 내방



“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 연구일선에서 헌신해 온 석학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과학기술 아카데미로서의 한림원 고유 역할을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 1차관은 지난 2월 2일 우리 한림원을 방문해 과학기술 각 분야의 대표적 석학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성현 전 원장을 비롯해 유정열 전 총괄부원장, 최항순 전 정책담당부원장 등 모두 8명의 석학들이 참여한 이날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한림원은 ▲정부의 과학기술 주요 현안에 대한 한림원의 정책연구 및 자문 활용 ▲과학기술유

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에 한림원의 참여 ▲남북한 통일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한림원의 역할 등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의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 연구일선에서 헌신해 온 석학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과학기술 아카데미로서의 한림원 고유 역할을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영국한림원 사무총장 내방

영국한림원 (Royal Society)의 줄리 맥스틴 (Julie Maxton) 사무총장이 지난 2월 16일 우리 한림원을 내방, 박성현 전 원장 및 유정열 전 총괄부원장과 함께 양기관간 과학기술협력방안에 논의했다.

맥스틴 사무총장은 이날 내방에서 우리나라가 영국한림원의 주요 교류국임을 설명하고, 금년도 개최 예정인 세계과학한림원서울포럼 (IASSE)에 관련연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간 공동심포지엄 개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개최시기는 금년 내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한림원과 영국한림원과는 지난 1998년 2월 과학기술협력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

G-Science Academies Meeting 2016 참석

우리 한림원은 지난 2월 17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G-Science Academies Meeting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학술회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금년 5월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G7 Summit)에 전달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 위해 G7 참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한림원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박성현 전 원장과 고광호 교수(의약학부 정회원)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두뇌, 재난, 과학자 육성 등 모두 3가지



의제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고, 이번 회의를 기획한 일본학술회회가 이를 G7 정상회의에 전달할 방침이다. ☎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 8대 신임 원장

‘핵의학 개척한 거두에서 병원 경영자까지 평생 도전인생’



우리 한림원은 사회적 이슈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한림원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림원이 만남 사람’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본 코너는 우리 한림원과 대덕넷이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글 _ 대덕넷 정윤하 기자

“평 생 아는 것보다 ‘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철학으로 살았습니다. 또 같이하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하는 것이 힘’이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신념을 펼쳐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분들을 집행부로 구성해 북

수지도체제(Multiple Leadership)로 운영할 계획이고, 저는 많은 석학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한림원이 발전하고 위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하신 석학회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박성현 전 원장님이 2014년에 창립 20주년을 준비하시며 미

션과 비전을 굉장히 잘 수립해주셨습니다.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차기 원장으로서의 목표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신임 원장에 이명철 국군수도병원장이 선출됐다. 지난달 26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되었다. 임기는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이명철 원장은 한국 핵의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거두로 꼽힌다. 이 원장은 동위원소 분야에서 전일제 근무를 한 국내 1호 의사이며, 핵의학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핵의학전문제도를 도입하는 산파 역할을 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핵의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핵의학회(SNM), 세계핵의학회(WFNMB) 등으로 구성된 국제협력위원회(Global Cooperative Council)을 운영, 전 세계 핵의학 관련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냈다. 2012년에는 31년간 몸담은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떠나 가천대 길병원장 및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으로 취임,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가천뇌융합 과학원 개원을 이끌었다. 2014년에는 군 의료체계 혁신을 목표로 민간인 최초 국군수도병원장에 취임했다.

이 원장은 “1974년 핵의학에 발을 들여 40년 넘게 과학기술계와 함께 했는데 마지막을 과학기술한림원장으로 봉사할 수 있어 매우 명예롭게 생각한다”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내 능력을 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남들과 다른 것 찾아다녀... 돈이 목적이었다면 개원했을 것”

이명철 원장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하니 중앙 홀에 초록물결이 가득 차 있었다. 어딘가 편치 않아 찾아온 수호자들이었지만 흐트러짐 없이 깨끗한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지도부 접견실에 들어서자 힘찬 붓글씨로 써놓은 ‘醫子醫世’가 눈에

“

한림원의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국민이 사랑하는
과학기술한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띄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머리가 똑똑하기 보다는 마음이 따뜻하고, 수월성을 갖추기 보다는 인성이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좀 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의대에는 환자를 정말 마음으로 치료하고 싶은 동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진학했으면 좋겠어요.”

서예작품에 대한 이명철 원장의 설명이었다. 이 원장은 10살 무렵까지 여름에도 긴 옷을 입어야 할 만큼 심한 피부병을 앓았다. 11살에 마지막 희망을 갖고 복유럽 의사들이 진료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는데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완치된 경험을 한 이후 장래희망이 의사가 되었다.

그렇게 서울대학교 의대에 진학, 전공분야로 내과를 선택했으나 마음속에는 계속 ‘무언가 새로운 것, 남들과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고 있었다. 그러다 1974년, 본과 4학년 때 새로운 학문분야였던 동위원소 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명철 원장은 “내과에서 반 년 정도 있으며 이 일이 적성에 잘 맞을까 걱정될 때 핵의학에 알게 됐다”며 “당시 독립된 전문분야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라 주변에서 모두가 말렸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에 매료돼 혼자 의학은 물론, 화학,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를 찾아다니며 배웠다”고 회상했다.



소문난 인맥王, “내 일의 동력은 사람…
많은 회원들 만나 소통하고 참여 이끌 것”

이명철 원장은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3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인물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맥 관리를 시작한 계기는 '핵'하면 무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핵의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핵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나 정책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병원, 학교, 정부, 기업 등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만나 끊임없이 대화했다.

이 원장은 “그때는 SNS가 없어서 발로 뛰고 손으로 쌓는 인간관계였다”며 “해외네트워크를 위해서 20여 년 동안 매년 가족사진을 찍어 700여장의 연하장을 보냈더니 외국인들에게 호응이 있어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가 이룬 성공의 동력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다”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줘서 내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림원 운영에 있어서도 국내외 인적 네트워킹 확대를 주요 과업으로 삼고 있다. 그는 “큰 꿈과 변화의 크기, 네트워킹의 규모가 성공의 3가지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한림원이 미국의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이 꿈인데 이를 위해 500여명의 석학회원들이 한림원 운영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결정들을 원장 혼자 아니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고 각 위원장과 학부장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림원의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국민이 사랑하는 과학기술한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우리 한림원이 국격을 높이고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3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

이후 31년 간 그의 행적은 그대로 국내 핵의학계의 역사가 됐다. 그는 동위원소 분야에서 전일제로 근무한 국내 1호 의사가 됐고, 1990년부터 6년 동안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과장을 맡았다. 1994년에는 영상장비인 PET를 국내 최초로 병원에 도입했고, 진료과 최초로 내부 전산네트워크(LAN)를 개설해 진료의 첨단화를 추구했다. 1995년 1월에는 핵의학을 전문 진료과목으로 추가하며 1996년 국내 첫 핵의학 전문의를 배출했다. 1997년에는 서울의대에 핵의학교실을 만들어 주임교수를 맡았고 대한핵의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국내 핵의학 발전을 견인했다. 또 밖으로는 국내 핵의학 수준을 알리기 위한 해외네트워크 구축에도 헌신한 끝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핵의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2006년 세계핵의학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 원장은 “처음 우리나라에 핵의학이 도입될 때만 해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 우리를 가르쳐주러 왔는데 지금은 핵의학 경쟁력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개원하는 대신 새로운 학문발전에 힘쓰며 얻은 결과에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후배들, 제자들에게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라고 조언하는데 용기를 쉽게 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하지 말고 최소 10년은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도전정신을 키우는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림원 후원안내

우리 한림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림원의 소명인 권위있는 과학기술 의견을 사회에 전달하려면 정부지원 예산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한림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뜻 있는 분들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후원은 아래 계좌로 일시금으로 보내시거나 월정액으로 매달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이체	수납 대행업체 ((주)케이에스넷 (KSNET))를 통하여 자동이체 신청회원의 지정 출금계좌에서 매달 약정금액을 인출하여 한림원 계좌로 자동 입금
자동이체 가능일	매달 5일, 15일, 25일 중 선택
자동이체 가능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신청방법	자동이체신청서 작성 후 우편 송부 신청서 다운로드: 한림원 홈페이지 (www.kast.or.kr) ⇨ 한림원소개 ⇨ 기금 및 후원금 회신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층 총무팀 (우: 13630)
후원 계좌 안내	(하나) 418-910007-87804 (국민) 549837-01-002423 (농협) 221134-55-000482 (우체국) 104844-01-000977 (신한) 456-01-009568 (우리) 1005-701-151488 예금주: (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후원 문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무처 총무팀 Tel: 031-710-4629 Fax: 031-726-7909 E-mail: jy78kim@kast.or.kr

■ 회원

(기간: 2015. 11. 19. ~ 2016. 3. 18 / 단위: 원)

구분	번호	성명	소속	후원액
발전기금	1	권육현	공학부 종신회원	3,000,000
	소 계			3,000,000
협찬금	1	김유항	이학부 종신회원	1,000,000
	2	김주덕	의약학부 종신회원	1,200,000
	3	윤정한	농수산학부 정회원	3,000,000
	4	조완규	정책학부 종신회원	400,000
	5	최원용	공학부 정회원	3,000,000
소 계			8,600,000	
합 계				11,600,000

아프리카 42개국 과학 석학들의 한림원 ‘아프리카한림원(AAS)’

글 _ 대덕넷 정윤하 기자

아프리카의 과학기술발전을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아프리카한림원(The African Academy of Sciences: AAS)은 1985년,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TWAS(Third World Academy of Sciences)와 같은 해에 설립됐다. 이탈리아 트리에스테(Trieste)에 위치한 국제이론물리센터(ICTP:International Centre for Theoretical Physics)는 개발도상국에게 금전적, 학문적

지원을 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과학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ICT는 전세계 다양한 국적의 과학자들을 트리에스테에 초청, TWAS의 설립을 논의했고, 트리에스테 총회에 참석한 제3세계 과학한림원과 과학자들이 TWAS의 설립회원으로 구성됐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립 아카데미의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자들 33인이 TWAS에 참여했고, 또한 AAS의 설립회원이 됐다.



“

AAS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임업 연구개발, 생명공학, 토양과 물 관리, 식량개선 등 4가지 전략을 구현했고, 현재는 △기후 영향 연구 능력 및 리더십 향상(CIRCLE) △아프리카 과학 발전을 위한 동맹(AESA) △세포생물학 및 재생의학 연구(CBRM) △과학장비 정책사업 등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

AAS는 42개국의 회원들로 구성된 하나의 범아프리카 과학한림원이다. 참여하는 국가들은 AAS에 참여하는 개인회원들을 통해 함께 일한다.

아프리카에는 별도의 한림원 네트워크인 NASAC(Network of African Science Academies)이 있는데 AAS는 NASAC의 설립에 산과 역할을 했고, 현재 NASAC의 회원이기도 하다. AAS 정회원에는 아프리카의 뛰어난 석학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한림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AS본부는 케냐 나이로비 남서부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나이지리아 출신 수학자인 쿠쿠(Aderemi Kuku) 박사가 4대 원장을 맡고 있다. 원장, 부원장 5인 등 임원 13명은 전자투표로 선출되며, 부원장 5인은 남부, 북부, 서부, 동부 및 중부아프리카의 지역을 대표하여 선출된다.

AAS의 정회원(Fellows)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아프리카 과학자들 사이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되며,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아프리카인이 아닌 해외 석학들 중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현재 아프리카 42개국과 인도, 미국, 덴마크, 영국, 독일, 이탈리아, 파키스탄 등에서 350여명이 AAS 회원



으로 활동 중이며, 그 중에는 아프리카출신 12명의 과학자들을 포함한 노벨상 수상자들도 있다. AAS는 2018년까지 600명으로 회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그 중 최소 15% 이상을 여성회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AAS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임업 연구개발, 생명공학, 토양과 물 관리, 식량개선 등 4가지 전략을 구현했고, 현재는 △기후 영향 연구 능력 및 리더십 향상(CIRCLE) △아프리카 과학 발전을 위한 동맹(AESA) △세포생물학 및 재생의학 연구(CBRM) △과학장비 정책사업 등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 한림원은 지난 2000년 10월 AAS와 과학기술분야 협력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 참석차 내한한 쿠쿠(Aderemi Kuku) AAS 원장과 업무협력 회의를 통해 공동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 1회 공동심포지엄은 지난 2015년 7월 케냐 나이로비 AAS사무국에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첨단 바이오과학기술(Recent Advances in Biosciences and Biotechnology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올해 4월 우리나라에서 제 2회 공동심포지엄이 예정돼 있다. ☞



INTERVIEW

쿠쿠(Aderemi Kuku) AAS 원장,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델”



Q AAS전략계획(Strategic Plan of the AAS(2013-20 18)에 따르면 ASS는 전세계적인 이슈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AAS의 목표와 프로그램, 주요 활동 등을 소개해 달라.

AAS의 전략계획은 AAS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AAS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 물과 공중위생, 지속가능한 에너지, 식량안보와 영양, 건강관리와 웰빙,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기후변화 등 주요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과학자들과 과학단체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과학기술혁신(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촉진을 위해 아프리카의 정부와 정책입안자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도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이 중 몇몇은 아프리카 전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것들이다.

또 전략계획의 내용들을 넘어 새로운 계획들도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아프리카 내에서 AAS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AAS는 △과학교육위원회 △범아프리카 사이언스 올림피아드(Pan-African Science Olympiads) 위원회 △아프리카 과학유산 위원회 △아프리카 여성과학자 위원회 등 네 개의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범아프리카 사이언스 올림피아드가 2015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개최됐고, 다른 위원회들

도 행사를 계획 중이다. 이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지난해 첫번째 공동심포지엄을 나이로비에서 개최했고, 올해는 서울에서 2회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것도 우리의 전략계획에는 없지만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 중 하나다.

우리는 아프리카 과학기술혁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를 통해 전략계획 안의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Q 아프리카 국가들과 AAS는 어떠한 협력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먼저 AAS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한림원들과 MOU를 맺었다. 나이지리아과학한림원, 가나과학예술한림원, 케냐과학한림원, 에디오피아과학한림원 등이 AAS 이름 아래 함께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우리는 아프리카 연합 팀들과 전략적 파트너를 맺고 있다.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African Union Commission), 아프리카과학기술장관회의(AMCOST:African Minister's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아프리카발전연합(NEPAD:New Partnerships for Africa's development), 범아프리카대학연합(PAU:Pan African University)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아프리카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나라들에서 과학기술혁신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Q 현대과학은 매우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학기술 투자와 경제발전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어려워 한다. 아프리카의 과학투자 상황은 어떠한가?

아프리카는 아직 연구개발 투자와 경제발전 사이에 절충점을 찾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는 과학기술혁신 연구의 어느 분야에서도 일정 수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분야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STI의 발전 없이는 경제발전도 있을 수 없다. 다양한 과학 분야 공개포럼들에서는 모든 아프리카 정부가 GDP의 1%를 과학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해왔으나 아프리카에서 해당 목표를 이룬 국가는 거의 없다.

Q 아프리카의 대학들도 고급인력유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것은 아프리카 뿐 아니라 개도국 모두의 문제다. 여기에 대해 아프리카는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 아프리카의 대학들이 과학기술인재들의 해외유출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현재 상황이 그런 재능 있는 과학기술자들을 필요한 만큼 양성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혁신 전문가들이 대륙 전역에 드문 드문 퍼져 활동을 하면서 정부와 이해당사자와의 균형 잡힌 투자 없이도 아프리카에 높은 수준의 교수, 양질의 연구시설과 장비들을 갖춘 대학들이 확산되고 있다. 가끔은 소위 말하는 두뇌유출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만약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만큼으로 대학의 수를 제한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많

은 투자를 한다면 두뇌유출 해결도 가능하다고 본다.

Q 아프리카는 많은 천연자원과 인력으로 최근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이 아프리카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이며, 아프리카에서 발전과 협력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프리카의 천연자원들이 세계에서 매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시간 대륙의 빠른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또 인구의 40%가 2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발전을 위해 결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다.

최근 공급과잉으로 인한 석유 가격 하락 때문에 아프리카의 석유생산국들은 다른 광물생산으로 전환하거나 그들의 넓은 경작지를 활용할 수 있는 농업에 투자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은 산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옳은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가야할 길이 멀다. 선진국들이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험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독립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한국이 지난 40년간 과학기술의 전 분야에서 이뤄낸 거대한 발전과 선진국으로 발돋움 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 아프리카는 한국을 모델로 배울 것이 많다. 한국과 MOU를 맺은지는 꽤 시간이 지났지만 양국 간 공동 심포지엄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최근 관계 진전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다. 앞으로 협력관계가 공고해질 수 있길 바란다.

우리 한림원의 IAP 이사국 당선은 국제 과학기술계에서 거둔 최고의 쾌거

글 _ 김유항 이학부 중신회원 / AASSA 사무총장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인근 허머너스 (Hermanus)에서 국제한림원연합회 (IAP—the global network of science academies)가 주관하는 세 가지 행사가 열렸다.

행사 첫 날인 2월 28일에는 IAP (the global network of science academies)가 작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Food and Nutrition Security and Agriculture” 프로젝트를 분

담해 수행하는 각 대륙별 네트워크 (아시아의 AASSA, 유럽의 EASAC, 미주의 IANAS, 아프리카의 NASAC)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점검 및 협의하는 회의였다.

2월 29일과 3월 1일 양일간은 통합 출범하는 IAP (InterAcademy Partnership)의 컨퍼런스로서 ‘Science Advice’를 주제로 (1) Science Advice Ecosystem, (2)



사진 가운데가 김유항 AASSA 사무총장, 오른쪽은 이명철 신임 원장

Science Advice in Times of Disasters/Emergencies, (3) Science Advice in the International Arena with a Special Focus on Synthetic Biology, (4) Country Readiness for Science Advice, (5) Interplay between Science Advice, Politics and the Media 등 다섯 가지의 소주제별 발표와 패널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날인 3월 2일에는 IAP (the global network of science academies)의 제 8회 총회가 개최되어 공동의장 및 이사국 선거, IAP (InterAcademy Partnership) 출범 등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우리 한림원에서는 이명철 신임원장, 본인, 그리고 김상철 선임행정원이 참가하였는데 이명철 원장과 김상철 선임행정원은 IAP 총회 대표, 본인은 IAP Food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AASSA 대표 자격이었다. 그러나 우리 세 사람은 각자의 형식적인 대표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KAST의 IAP 이사국 당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총회에서는 관례대로 전차 총회 (2013년 2월 27일 브라질 리오테자네이로 개최) 회의록, 2013~2015년 기간의 활동 및 결산, 2016년도 활동 계획, 신규가입 회원의 보고·의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AASSA를 비롯한 4개 대륙별 네트워크, IAC·IAMP 등 IAP 구성기관, IAP 교육위원회의 활동보고가 뒤따랐다. 오후에는 새로 출범하는 통합조직인 IAP (InterAcademy Partnership)의 전략계획 및 실천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새 조직의 정관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IAP (InterAcademy Partnership)은 종래의 IAP (the global network of science academies), IAC (InterAcademy Council), IAMP (InterAcademy Medical Panel)이 각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세계과학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여 영향력을 높임과 아울러 펀드레이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통합해 만든 일종의 통솔 기구 (umbrella organization)이다.

마지막으로 종래의 IAP (the global network of science academies)의 공동의장과 이사국 선거가 있었는데 공동의

“

우리 한림원의 IAP 이사국 당선은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과 출범 후 한림원이 이룬 국제협력에 대한 기여를 국제 과학계가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

장으로는 선진국 (industrialized country) 몫에 Volker ter Meulen 교수 (독일)가 재선되고,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 몫으로는 4명의 후보 (쿠바, 이집트, 요르단, 인도 (이하 알파벳 순)) 중 세 번에 걸친 투표 끝에 인도의 Krishan Lal 교수 (현 AASSA 회장)가 당선되었다. 곧 이어서 우리 대표단의 최대 관심사인 이사국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배정된 다섯 개의 의석을 놓고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학술원, 영국 및 미국과 크로아티아가 공동 추천한 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와 경쟁하게 되었다. 이 중 캐나다와 일본은 연임에 도전하는 이사국으로 관례상 당선여부의 확실시되므로 결국 세 자리를 놓고 여섯 개 한림원이 경쟁하는 구도였다. 오랜 시간을 거친 개표과정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득표수를 밝히지 않고 당선국만 알파벳 순서로 발표했는데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이 먼저 호명되어 우리 대표단의 애를 태우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림원이 호명되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다. 참고로 개발도상국 몫은 6개 이사국으로 브라질, 쿠바, 칠레, 이란,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당선되었다.

이번 우리 한림원의 IAP 이사국 당선은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과 출범 후 한림원이 이룬 국제협력에 대한 기여를 국제 과학계가 높이 평가한 결과로 생각하며, 아울러 이사국 당선을 계기로 국제과학계에서 우리 한림원의 정당한 위상 확보를 위해 민간 과학외교에도 배전의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K

‘한림원이 과학 대중화에 적극 참여 필요’

글 _ 신동화 농수산학부 중신회원 /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한림원은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석학들이 모인 우수한 두뇌집단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교육계, 산업계 그리고 정부에도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다.

과학기술은 대단히 특수한 분야이면서도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한 지식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공유하여야 하고 이 분야 과학기술인은 자기의 지식을 나눠 우리 모두의 보람 있는 삶과 생활을 풍요롭게 함께 해야 할 책무도 가지고 있다.

이런 필요에 따라 한림원은 전문적인 과학기술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의 생활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다. 예를 들면 한림원 회원의 전문 지식을 사회와 공유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발간사업, 세미나, 심포지엄, 그리고 특수한 주제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려 노력하였고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석학과의 만남이란 행사를 통하여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곤 하였다. 특히 멘토 사업을 통하여 1:1접촉으로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전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들 여러 사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회원들이 갖고 있는 과학분야의 전문지식을 보급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효과는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아직도 세미나, 심포지엄, 콜로키엄 등은 같은 분야 전문가들만의 행사가 되고 있으며 일반인의 참여는 아주 미미하다. 그 이유인즉 대단

히 전문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언어의 소통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한림원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바 그 돈의 값어치만큼 납세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있는가를 자성할 필요가 있다.

한림원의 기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고양과 발전, 그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과학입지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한 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 과학기술이 교육계와 일반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2개의 축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축인 과학계와 과학인의 발전에는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이제 다른 축인 과학의 대중화, 일반인을 위한 과학기술의 전파 등은 지금의 방법에서 벗어나 더 실용적이며 가까이 다가가는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가능한 폭넓은 여러 층의 언론 매체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분야별로 전문가의 칼럼을 시의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써서 게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일반화되어 있고 파급력이 큰 SNS를 통하여 과학에 관한 일반인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고정란을 한림원 안에 운영했으면 한다.

누구나 한림원에 항상 열려있는 SNS 창에 질문하고 전문가가 친절하고 수준에 맞게 답을 해주는 방법이다. 호응도가 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신속하게 개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문제, 식량문제, 교육문제 등을 토론 주제로 삼고 이를 지상파 방송국과 공동주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림원은 토론에 응할 훌륭한 적임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네 번째는 각종 소비자 단체들과 연계하여 과학적인 이슈에 대한 공동토론회를 주최하는 방안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과학적인 사안에 대하여 궁금하나 이 궁금증을 풀어줄 전문인을 찾기가 어렵다. 소비자 단체의 구성원은 대부분 일반인들이므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적절한 대상이며 한림원을 일반인에게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대부분 지역에 있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R&D나 또는 그들이 겪는 기술애로를 해결해줄 전문가를 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여 우리 한림원의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시작했으면 한다. 아마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학문별로 관계되는 정부부처와 정기적으로 회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한다.

예를 들면 농수산학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회동을 통하여 정부 측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우리 회원들이 전문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처에 따라서는 필요한 정책 연구 등을 요구하고 이들 제안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적 여인상 ‘미인도’

본 코너는 과학자의 시각에서 바라 본 명화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명화에 담겨져 있는 과학적 진실과 즐거움을 회원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주>

조 선후기의 대표적 화가 신윤복[申潤福, 1758(영조 34)~?]과 김홍도[金弘道, 1745(영조 21)~?]에 얽힌 미스테리를 다룬 이정명의 소설 <바람의 화원>과 이를 영상으로 옮긴 드라마와 영화도 만들어졌다. 신윤복은 김홍도, 김득신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3대 풍속화가 중 하나로 본관은 고령. 자는 입부(笠夫), 호는 혜원(惠園)이다. 중인 출신으로 역시 화원이었던 신한평의 아들로서 도화서(圖畫署) 화원이 되고 벼슬도 했으나 저속한 여인 그림을 즐겨 그리다하여 도화서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화풍은 서민들의 생활을 주로 그린 김홍도와는 달리 양반과 기녀 간의 애정사를 주로 그렸고 섬세하고 유연한 선과 색채의 달인이었다.

조선의 미인도는 서양의 초상화나, 중국이나 일본의 미인도와 다르다. 그들의 초상화는 특정인의 모습을 사진처럼 남기려는 목적으로 그려지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선의 미인도는 이상적인 여인상, 즉 단정하고 기품있고 조용하고 후덕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그려서 여성들은 그를 보고 배우고 남성들은 그런 여인을 아내로 얻으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전창립 박사 홍익대학교 바이오화학과 교수 cjun@hongik.ac.kr



전창립 교수는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산업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국립대학에서 고분자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결정구조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1986년부터 LCD연구를 하다가 해외과학자 유치계획에 선정돼 귀국한 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다 1990년 홍익대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고분자화학과 미술재료의 화학적 연구에 관심이 많다. 저서인 <알고 쓰는 미술재료>는 화학자가 쓴 유일한 미술대학의 미술재료학 교재다.

- 과학동아 2007년 7월호에 실린 <미술관에 간 화학자>의 소개 글

이 미인도에 나타난 조선의 이상적 여인상을 보자. 키는 서양처럼 8등신이 아니라 7등신쯤 된다. 머리는 칠혹처럼 검고 단정히 빗었다. 얼굴형은 현대처럼 가름하지 않고 볼에 살이 통통하게 붙어있는 달걀형이다. 눈썹은 질지 않고 가늘고 초승달같이 둥글다. 현대에선 크고 동그란 눈을 선호하나 미인도의 눈은 가늘고 작다. 속눈썹도 없고 쌍꺼풀도 없다. 입도 현대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작다. 목은 가늘고 길며 어깨는 넓지 않고 목선이 연결되듯이 곡선으로 빠져있다. 유방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나 엉덩이는 크게 그렸다. 손은 작으나 손가락은 가늘고 길어서 섬섬옥수(纖纖玉手)로 부를 만하다. 현대의 미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그림에서 치마 고름의 붉은 색은 진사(辰砂)라는 광물에서 얻어지는 주(朱)색인데 황화수은(HgS)으로서 독성이 매우 강하지만 변색이 잘 안되고 색이 아름다워 오랫동안 화가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200년이 넘는 지금도 붉은 색이 선명하다. ☺

“ 조선의 미인도는 이상적인 여인상, 즉 단정하고 기품있고 조용하고 후덕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그려서 여성들은 그를 보고 배우고 남성들은 그런 여인을 아내로 얻으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

신윤복, 미인도, 1805년경, 비단에 담채, 간송미술관





김명자 박사

정책학부 종신회원인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2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7년 3월부터 3년. 김 박사는 1999년 환경부 장관에 오르면서 헌정 최장수 여성장관 기록을 세운 인물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을 역임하며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데 노력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국방위원회 간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일두 교수

공학부 준회원인 김일두 KAIST 부교수는 지난 1월 26일 KAIST에서 개최된 2015 EEWS 사업(기술)기획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 2월 16일 KAIST 개교 45주년 기념행사에서 국제협력사업과 국제학술활동을 통한 KAIST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협력상을 수상했다.



김학수 교수

정책학부 정회원인 김학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1월 14일 한국여성과학(KOFWST) 주최 2016년 제1회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에서 “과학으로 대중과 소통하기”를 주제로 기초강연을 했다.



서진호 교수

농수산학부 정회원인 서진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Current Opinion in Biotechnology'誌의 초빙 편집장으로 참여했다. 서 교수는 동 학술지의 특별주제인 'Food Biotechnology 2016'에 초빙 편집장으로 참여했으며, 지난 2월 통권 37호로 발간되었다.



신동화 교수

농수산학부 종신회원인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최근 전주에서 8년 동안 운영하던 “신동화식품연구소”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4길 14로 이전했다. 신 교수는 기존 전주에서 지속해오던 관련 응용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계속한다. 새롭게 이전한 연구소의 연락처는 02-539-9362이다.



박상철 교수

의약학부 정회원인 박상철 교수 (전 삼성종합기술원 부사장)은 지난 1월 21일 DGIST의 뉴바이올로지 전공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박 교수는 노화 의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향후 DGIST 내의 동물 및 인간 노화 분야의 세계 최고 과학자 그룹을 형성해 차세대 연구자를 육성하게 된다. 또한 DGIST가 노화분야의 국제적 우수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책자문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이공래 박사

정책학부 정회원인 이공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는 지난 2월 19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기술경영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제 4차 산업혁명과 지역기술혁신 - 위기의 지역경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주제로 기초강연을 했다.



이영백 교수

이학부 정회원인 이영백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인도 Kolhapur에서 열린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erials Science and Ionizing Radiation Safety & Awareness에서 'Perfectly-absorbing properties of meta-structures/materials' 이란 주제로 초청강연을 했다. 이어서 인도 Ichalkaranji 소재 DKTE Institute, 인도 Pune 소재 Pune University, 인도 Mumbai 소재 KBP College에서도 유사한 주제로 순회 초청강연을 했다.



이일항 교수

이학부 정회원인 이일항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월 초 개최된 미국 SPIE-PW 국제광자공학술대회에서 Smart Photonics학회 공동위원장(Conference Co-Chair)을 맡아 주관했다. 이 교수는 또한 오는 8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PIERS-2016 국제대회의 광학 및 광자공학 (Optics & Photonics) 분야 총괄 공동학술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종훈 교수

공학부 정회원인 이종훈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난 1월 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고려대 교우회에서 모교 교수 중 뛰어난 연구업적을 세운 교수에게 시상하는 '제3회 교우회 학술상' 을 수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난 해 11월 16일부터 3일간 말레이시아 Penang에서 개최된 ACCS 2015 (Asian Conference on Chemical Sensors 2015)에서 'New Strategies to Design Highly Selective Oxide Semiconductor Gas Sensors'를 주제로 기초강연을 했다.



이태억 교수

정책학부 정회원인 이태억 KAIST 교수는 지난 해 12월 반도체 제조공정장비의 운영 및 스케줄링을 최적화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연구재단 및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했다.



진정일 교수

이학부 종신회원인 진정일 교수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1월 25일 국내 과학자로는 최초로 미국화학회 (American Chemical Society, ACS)의 PMSE (Polymeric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석학회원 (펠로우)에 추대되었다. 진 교수는 그간 기능성 고분자와 DNA 재료과학 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고분자 재료에 대한 국제 연구논문 4백편 이상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회 (IUPAC)의 회장직을 수행했으며, 35년 이상 미국화학회 (ACS) 회원으로 활동했다.



하창식 교수

공학부 정회원인 하창식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난 3월 2일자로 부산대학교 석학교수(Distinguished Professor)에 임용되었다. 부산대는 지난해 '석학교수 운영 규정' 기준을 만들어 우수 교원의 강의시수 부담을 줄여주고, 만 65세인 정년을 만 70세까지로 연장해 주는 새로운 '석학교수제'(Distinguished Professorship)를 도입하였고, 2016학년도에 처음으로 하 교수를 포함한 5명의 석학교수를 임용했다.